

경기장 밖 바다까지 날아가는 '장외 홈런'

추신수, 상대 선발투수
3구째 시속 86마일짜리
컷 패스트볼 잡아당겨
매서운 방망이질에
타구는 외야 스탠드 넘어
텍사스, 9-5로 승리



텍사스 레인저스 추신수가 2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미국 프로야구(MLB)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선발 출전해 5회 2점 홈런을 치고 있다.

추신수(38·텍사스 레인저스)가 경기장 밖 바다까지 날아가는 장외 홈런을 쏘아올렸다. 추신수는 3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2020 메이저리그(MLB)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1번 타자 겸 좌익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1안타 1볼넷 2타점 2득점을 기록했다. 그의 방망이는 5회초 날카롭게 돌아갔다. 텍사스가 3-1로 앞선 5회초 1사 1루 상황에서 세 번째 타석을 맞은 추신수는 상대 선발 제프 사마치의 3구째 시속 86마일(약 138.4km)짜리 컷 패스트볼을 잡아당겼다. 추신수는 가운데로 몰린 공에 매섭게 방망이를 휘둘렀고, 타구는 오른쪽 외야 스탠드를 넘어 매코비만 바다에 빠졌다. 카약을 타고 홈런 볼을 기다리던 이들이 추신수의 홈런볼을 두

고 다루는 모습도 보였다. 텍사스 선수가 매코비만으로 날아가는 홈런을 날린 것은 추신수가 2018년 8월25일 루그네드 오도어 이후 약 2년 만이다. 2경기 연속 대포다. 지난 1일 샌프란시스코전에서 마수같이 홈런을 신고한 추신수는 전날 경기에는 결장했다. 추신수는 이외에 타석에서는 안타를 치지 못하고 볼넷 1개만 골라냈다. 1회초 첫 타석에서 헛스윙 삼진으로 돌아선 추신수는 2회초 2사 1루에서는 2루 땅볼을 치는데 그쳤다. 5회초 홈런을 때려낸 추신수는 5-5로 추격당한 7회초 무사 1루에서는 볼넷을 골라냈다. 후속타자 엘비스 앤드루스까지 볼넷을 골라내면서 텍사스는 무사 만루의 찬스를 만들고, 윌리 칼훈이 희생플라이를 쳐 6-5 리드를 잡았다. 계속된 1사 1, 3루에서 조이 갈로가 우중월 3점포를 때려내면서 텍사스는 9-5까지 달아났다. 추신수는 8회초 마지막 타석에서는 2루 땅볼로 물러났다. 2경기 연속 대포를 신고한 추신수의 시즌 타율은 0.125에서 0.150(20타수 30타)으로 올라갔다. 추신수, 갈로의 홈런을 앞세워 9-5 승리를 거둔 텍사스는 2연패에서 탈출했다. 한편 KBO리그 삼성 라이온즈에서 뛰었던 다린 러프는 샌프란시스코의 7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로 참목했다. /뉴시스

류현진, 애틀랜타전서 시즌 3번째 선발 등판

6일 토론토 이적 후 첫 승 재도전



류현진(33·토론토 블루제이스)이 이번에도 5일을 쉬고 토론토 이적 후 첫 승에 재도전한다. 류현진은 6일 오전 8시10분(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트루이스파크에서 열리는 2020 메이저리그(MLB)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의 원정경기에서 선발 등판한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닷컴의 토론토 담당 키건 마테존 기자에 따르면 토론토는 5~7일 애틀랜타와의 원정 3연전에 등판할 선발 투수를 공개했다. 맷 슈메이커가 5일 경기에 등판하고, 류현진이 6일 선발로 마운드에 오른다. 7일 선발 투수는 강속구 유망주 네이트 피어슨이다. 토론토는 지난달 31일 워싱턴 내셔널스전 이후 경기를 치르지 못했다. 당초 토론토는 1~3일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3연전을 치를 예정이었다. 그러나 필라델피아 구단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경기가 모두 취소됐다. 4일은 원래 휴식일이었다. 지난달 31일 이후 워싱턴에 머물며 나올간 휴식을 취한 토론토는 5일부터 애틀랜타와 3연전에 나선다. 필라델피아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경기 취소가 없었더라도 로테이션대로라면 류현진은 6일 선발 등판할 예정이었다. 토론토는 일정 변경 없이 그대로 류현진을 6일 경기 선발로 투입한다. 류현진의 시즌 세 번째 등판이다. 앞선 두 차례 선발 등판에서 류현진은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2경기에서 승리없이 1패만 떠안았고, 평균자책점은 8.00에 달했다. 2경기 연속 5이닝을 채우지 못하면서 에이스로서 체면을 구겼다. /뉴시스

류현진(33·토론토 블루제이스)이 이번에도 5일을 쉬고 토론토 이적 후 첫 승에 재도전한다. 류현진은 6일 오전 8시10분(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트루이스파크에서 열리는 2020 메이저리그(MLB)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의 원정경기에서 선발 등판한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닷컴의 토론토 담당 키건 마테존 기자에 따르면 토론토는 5~7일 애틀랜타와의 원정 3연전에 등판할 선발 투수를 공개했다. 맷 슈메이커가 5일 경기에 등판하고, 류현진이 6일 선발로 마운드에 오른다. 7일 선발 투수는 강속구 유망주 네이트 피어슨이다. 토론토는 지난달 31일 워싱턴 내셔널스전 이후 경기를 치르지 못했다. 당초 토론토는 1~3일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3연전을 치를 예정이었다. 그러나 필라델피아 구단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경기가 모두 취소됐다. 4일은 원래 휴식일이었다. 지난달 31일 이후 워싱턴에 머물며 나올간

프로야구 7월 MVP 후보는 누구?

스트레일리·허경민
최정·김현수·로하스



롯데 자이언츠의 외국인 에이스 댄 스트레일리가 투수로는 유일하게 KBO리그 7월 최우수선수(MVP) 후보에 올랐다. 스트레일리와 함께 허경민(두산 베어스), 멜 로하스 주니어(KT 위즈), 최정(SK 와이번스), 김현수(LG 트윈스)가 7월 MVP를 놓고 경쟁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3일 KBO리그 7월 MVP 후보 5명을 공개했다. 7월 MVP 경쟁에서 타자들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유일한 투수 후보로 이름을 올린 스트레일리는 7월 6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38% 이닝을 던지며 4승 1패 평균자책점 1.16의 빼어난 성적을 거뒀다. 월간 투구 이닝 1위이고, 평균자책점은 2위다. 특히 9이닝 평균 삼진이 9.78개에 달했다. 7월 한 달 동안 탈삼진 42개를 잡는 동안 볼넷은 7개만 허용했다.

커리어 하이 시즌을 예고하고 있는 허경민은 7월에 불꽃타를 휘둘렀다. 7월에 출전한 22경기에서 모두 출루에 성공했다. 최정은 지난달 29일 인천 LG전에서 개인 통산 352호 홈런을 날리며 양준혁(351개)을 제치고 통산 홈런 순위 단독 2위로 올라섰다. 현역 타자 중 가장 많은 홈런을 기록 중인 최정은 이제 이승엽의 통산 홈런 1위 기록(467개)을 바라본다. 김현수는 홈런 공동 1위(9개), 타점 1위(29개), OPS 3위(1.280), 안타 4위(32개) 등 고른 활약으로 LG 타선을 이끌었다. 특히 9개의 홈런을 치는 동안 삼진은 단 10개 뿐이었다. /뉴시스

6월 MVP인 로하스는 7월에도 뜨거운 방망이를 자랑했다. 월간 타율 2위(0.412), 안타 3위(35개), 홈런 3위(8개), 장타율 2위(0.812), 출루율 3위(0.485), OPS 1위(0.1297)를 차지했다. 월간 MVP는 한국야구기자회 기자단 투표와 신한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신한 SOL(솔)'에서 실시하는 팬 투표를 합산한 점수로 최종 선정된다. KBO 7월 MVP로 선정된 선수에게는 상금 200만원과 60만원 상당의 신한은행 골드바가 부상으로 주어지며, 7월 MVP 최종 결과는 9일 발표한다. /뉴시스

www.culture-night.gunsan.kr
GUNSAN CULTURE NIGHT

야경
夜景

야로
夜路

야사
夜史

야화
夜畫

야숙
夜宿

야식
夜食

야설
夜說

야시
夜市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

문화財 夜行

※려름밤
빛 근대문화유산
의 거리를 걷다

야행

군산 문화제

2020. 8. 13. [목] - 8. 15. [토]

18:00 - 22:00 | 군산 내항 및 원도심 일원

주최 **군산시**

군산시 문화예술과 063)454-3922

지원 **문화재단**

전라북도